

## 2005년 전면 수입개방, 저가 수입육 대비 위해 집중투자

□ 정리 / 김용화 부장

□ 통역 / 김정인 신촌사료 부사장

「본고는 지난 20일 내한한 타이완 후소사료회사(생산량 2위, 연 40만톤) 홍요곤 사장을 만나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환율이 지난해 8월 기준 75% 이상 상승하여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제경쟁력제고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데 향후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환율상승이 30%선을 유지하고 있는 타이완의 양계업을 조명하여 우리나라 양계업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분석해 보기위해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주 —

▲ 김용화 : 타이완은 외환보유고가 높아 아직 경제위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내한하신 소감과 타이완의 양계업 현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홍요곤 : 한국에 지난해에 왔을 때보다 경기가 나빠 보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접 와서 보니 사회분위기가 안정이 되어 있고, 다시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각오들이 대단하여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이 갑니다.

타이완은 한국보다 외환위기가 없어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로

타이완 元貨가치도 약 30%가 평가절하가 되어 사료가격이 인상되고 수출·입에 변화가 생겨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료원료를 비롯 종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같은데 닭고기의 경우에는 수입 전용육계, 개량 재래닭, 토종닭으로 구분이 되어 소비가 되고 있는데 '96년 기준으로 볼 때 육계는 총 3억2천4백만수가 생산이 되었는데 이중 전용육계는 1억6천만수였으며, 나머지는 재래닭이나 토종닭이 1억6천4백만수로 51%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육수로 볼때는 전용육계가 적어도 출하중량이 커서 닭고기 생산량은 많은데 소득면에서



△ 福壽사료 홍요곤(洪堯昆) 사장

는 오히려 토종닭이 우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량에 따라 가격변동이 커서 문제는 되고 있지만 수입개방이 확대되면서 수입닭고기에 대항하기 위해 토종닭 사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란계는 식란시장을 중심으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5만수 이하 농가들이 대거 탈락하고 대형화 농장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KFC와 맥도널드가 진출을 하면서 젊은층을 파고들기 시작하여 육계업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는데 후라이드 치킨이나 치킨버거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개방으로 수입 닭고기가 미국에서 저가로 들어오면서 생산비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타이완산의 공급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김용화 : 타이완은 지난해에 돼지구제역

으로 양돈산업에 심한 타격을 받았는데 양계산물이 그때 아무래도 반사이익을 보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홍요곤 : 이익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1,500만두를 유지했던 양돈이 구제역으로 700여만두까지 감소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살처분하는 장면이 매일 TV의 뉴스에 등장하면서 국민들이 돼지에 대해 혐오를 느껴 닭고기 소비가 약 2개월 가량 급증한 것이 사실인데 돼지고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돼지 구제역으로 돼지고기 소비는 크게 줄었고 양계산물 소비는 늘었던게 사실입니다.

▲ 김용화 : 수입개방의 확대에 따른 축산업계의 구조변화와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홍요곤 : 계란은 현재 1인이 연간 약 300개대를 소비하고 있는데 농가수는 줄고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자동화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현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고 육계는 타이완인들도 토종닭을 좋아하고 있어 요리법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삼계탕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유한 상품을 생산해 낸다면 수입이 개방되어 저가 수입육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 시장유지는 하게 되지 않을까해서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 김용화 : 원화(元貨)가치 하락에 따른 사료가격 변동과 제도적인 안정장치는 있는지요?

△ 홍요곤 : 타이완은 WTO회원국은 아니지만 1999년에 재가입을 할 예정으로 추진중인데 이미 미국과 쌍무협상을 통하여 협상대상국과 같이 수입개방 일정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가입이 된다면 당해연도에는 닭고기의 수입 쿼터량이 5%가 되고, 관세는 25%로 출발해서 2004년에는 쿼터량 12%, 관세는 20%로 하향되어 2005년부터는 20% 관세로 수입을 전면 개방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은 곡물수입도, 축산물수입도 자국산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어 이에 반발한 사료업자들이 콩의 경우 남미나 태국에서 전량 수입을 하는 등 다변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불안하여 사료업체는 현찰로 구매를 하고 농가에도 가급적 현금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30%의 환율상승으로 사료가격은 5~10%를 인상시키다보니 경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때 10년간에 걸쳐 270여개의 사료공장들이 70여개로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20여개가 더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 50여개의 사료공장들이 자율경쟁으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타이완에도 정책적으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雜糧基金」이 있는데 조성만 해놓고 정책적으로 타용도로 이용이 되어 실제적으로 사료가격 안정기금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김용화 : 타이완의 양계산업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신지 전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홍요곤 : 채란계와 육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화, 대형화 추세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닭고기의 경우 전용육계를 사육하여 수출을 한다는 식의 현실성이 없는 사업보다는 타이완 고유의 토종닭산업을 발전시켜 신선육 위주로 공급을 하면서 수출도 모색을 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타이완은 한국보다 정부가 축산업에 대해 보호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율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거위, 오리 등도 사육하여 새로운 메뉴를 계속 개발하거나 일본에 수출을 시도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중국이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해 가금물의 수출이 중단되어 있지만 본격적으로 수출이 시작되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이완의 축산업은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다소 자체 생산량은 줄더라도 얼마간은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 농가나 관련 업체들이 힘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 김용화 : 환율이 높아져도 저가 공세로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토종닭을 좋아하는 면도 비슷하지 않나해서 앞으로 타이완의 수입개방 대처 방안을 참고로 한다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계